

'오월의 청춘' 배우 고민시, 5·18기념재단에 천만원 기부

5·18민주화운동 배경 드라마서 주연 오월자치 공동체 구현 시민들에 감사 재단 "기부금 진상규명 등에 사용"

배우 고민시(미스틱스토리)가 지난 5월 17일 5·18 기념재단에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민시는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KBS 2TV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에서 주연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오월의 청춘'은 동화 '오월의 달리기' (김해원 작, 푸른숲주니어)를 원작으로 제작됐다. 매 순간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던 1980년 봄 광주 청춘들의 이야기와 5·18민주화운동을 조명하는 드라



시 시민자치 공동체를 구현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다. 고민시는 극중 광주 평화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김명희 역을 맡아 1980년 5월 일상 속에 살아가던 광주 시민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민시는 기부금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자치 공동체를 구현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5·18기념재단 정관에 근거해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예정이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1980년 5월 광주는 말할 수 없었고, 지금도 왜곡되고 있는 역사다", "5·18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이 나오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고민시 배우의 정성스러운 기부금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평등과 나눔의 연대활동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월의 청춘'은 지난 5월 3일부터 방영을 시작했으며, 8일 밤 9시 30분에 최종회를 방송할 예정이다. 지난 1일 10회 2부는 시청률 5.6%(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를 기록, 월화극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병원, 송원대 산학협력단과 상호협력 협약



전남대병원 융합의료기(산업지원센터(센터장 윤택림 정형외과 교수)는 최근 송원대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인재 취업을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 제공, 기술정보 및 연구자료 상호 제공,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 및 문화활동 전개,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대병원 제공>

광주전남 굿네이버스, 대한안전연합에 후원물품 전달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가 최근 대한안전연합(회장 정현민)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모아 후원물품' 60박스를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식품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35년 만에 상봉 → 이별 → 재상봉... "이젠 헤어지지 말자"

스웨덴 입양아 광주 언니·오빠와 상봉

"다시는 형제들과 헤어지지 않겠다." 1976년 스웨덴에 입양됐다가 35년 만에 가까스로 친부모와 형제를 찾았지만 사정이 생겨 다시 이별한 뒤 최근 10년 만에 친형제와 다시 상봉한 입양 한인 김모(45)씨가 언니와 오빠를 보자 눈시울을 붉히며 이 같이 털어냈다. 그 사이 그의 친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김씨와 친형제는 4일 오후 광주시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화상으로 만났다.

동역과 상봉을 진행한 센터의 이정민 대리는 "김씨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했다"고 7일 전했다.

화면으로나마 동생의 얼굴을 마주한 큰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이 늘 미안해하셨고, 보고 싶어하셨다. 다시 우리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씨는 "언니 오빠가 다시 반갑게 맞아줘 기쁘다"고 응답하며 행복해했다.

이들은 준비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김씨는 1976년 광주시에서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는 입양을 의뢰했고, 그



스웨덴에 사는 김씨가 4일 언니, 오빠와 광주에서 진행한 화상상봉 장면.

는 같은 해 낯선 땅 스웨덴에 갔다.

그는 부모와 형제들과 얼마동안 서신을 주고 받으며 그리움을 달랬다. 하지만 김씨가 대학 졸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 연락은 두절됐다.

그는 10년 만에 다시 아동권리보장원에 친부모 찾기를 의뢰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원으로 광주에 사는 언니와 오빠들을 찾아냈다. /연합뉴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사진)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과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시작한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SNS를 통해 공유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풍년 대표이사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탁용석 원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고 다음 차례로 한희원미술관 한희원 관장을 지목했다.

황풍년 대표이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사회의 성숙도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지표"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전KDN, 노사 공동 '같은 가치' 청렴실천 캠페인

한전KDN(사장 김장현·사진)은 7일 나주 본사 출근길에 '노사공동 같은 가치' 청렴실천 캠페인을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김 사장과 박종섭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 정성학 감사 등은 직원들에게 '같은 가치, 같은 청렴, 가치있는 청렴' 문구가 실린 배설기를 나눠줬다.

한전KDN은 전국 사업소에서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전KDN 임직원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불꽃만 신선놀음 스페셜	00 중계방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5 UHD 스포츠(재)	00 오월의 청춘(재)		4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재)	00 12 MBC 뉴스 20 크리켓광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50 박미선과 돈위리 돈해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운동맛집 5분 레시피(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짹 짹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UHD 스포츠(재) 05 시사기획 창(재)	00 KBS 뉴스타임 10 보토스 패밀리(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웃집 찰스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오월의 청춘	20 아무튼 출근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육탑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00 라켓소년단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100분토론	35 라우드(재)
12	10 세계 해양의 날 기획 KBS결탁 다큐멘터리(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이미테이션(재)		45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세미와 매직큐브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코몽2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두다다쿵	14:10 EBS 다크프라임	19:50 극한직업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00 딩동댕 유치원	15:15 클래스e	<외판 마을 기행
08:30 출동! 슈퍼윙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안테스 산촌별곡, 콜롬비아>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명TV	21:30 한국기행
09:00 뽕뽕뽕 뽕로로	16:00 마사와 꿈	<블루서명하리 2부 내 어린 시절처럼>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마사와 노래요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23:35 클래스e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23:5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음 4월 28일 丁亥)

<p>36년생 행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48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마리를 찾게 된다. 60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72년생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겠다. 84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보게 된다. 96년생 기조는 유서하니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7, 71</p>	<p>42년생 예를 좇다보면 길사가 중중하리라. 54년생 재판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66년생 철자대로 투명하게 처리함이 나올 것이다. 78년생 말을 아끼지 않으면 지난날의 공로가 무너진다. 90년생 양면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02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8, 67</p>
<p>37년생 집적인 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난감해진다. 49년생 지리멸렬함을 청산하고 파격적인 진보를 보게된다. 61년생 필연적이려면 작극 나서서 것이 마땅하다. 73년생 값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85년생 당치도 않으니 꿈도 꾸지 말라. 97년생 안전하지 못한 양태이니 방심하지 말고 즉시 조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7, 61</p>	<p>43년생 상급히 생기겠지만 거의 없어지게 된다. 55년생 속 단한다면 머지않아 큰 후회하게 될 것이니라. 67년생 예리한 탐색을 하지 않으면 허점을 간과하게 된다. 79년생 양자를 비교해보면 즉시 알 수 있으리라. 91년생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운세이다. 03년생 진중하게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1, 52</p>
<p>38년생 내버려 둔다면 마무리가 시원치 않게 끝날 수도 있다. 50년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바로 그 날이 될 것이다. 62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74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86년생 한시름 놓을 수 있는 판국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98년생 생기가 효과를 좌우한다. 행운의 숫자 : 87, 77</p>	<p>32년생 소망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44년생 상대가 소극적이려면 굳이 강권할 필요가 없다. 56년생 긍정적인 적극적인이어야만 타개할 수 있겠다. 68년생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생기면서 급박한 될 수도 있다. 80년생 슬모였다고 여겨왔던 것이 오히려 이름다. 92년생 거주장소였다면 두 말 없이 청산하라. 행운의 숫자 : 08, 70</p>
<p>39년생 상호 교제한다면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51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63년생 관계를 개선하면 예기치 못한 기회들과 접하게 된다. 75년생 애매하다면 흥하니 흥백은 확실히 가리는 것이 낫다. 87년생 강경책과 운운책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9년생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9, 94</p>	<p>33년생 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45년생 이루는 것 못지않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57년생 한가지만 해결되면 연쇄적인 효과를 본다. 69년생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81년생 여러 가지 결과물이 생기겠으나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93년생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두라. 행운의 숫자 : 09, 73</p>
<p>40년생 가만 갈수록 점점 수월해질 것이다. 52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할 판국이니라. 64년생 중동적인 조처라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76년생 일방적인 방법의 채택이 무난하다. 88년생 이면까지 살펴 본 후에 판단할 일이다. 00년생 후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19, 64</p>	<p>34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46년생 전례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다. 58년생 전대미문의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70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법위에 놓여 있느니라. 82년생 철저한 정비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94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8, 98</p>
<p>41년생 특별한 일을 당하거나 목도하더라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53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65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77년생 제 때를 만났으니 힘껏 내달려야만 한다. 89년생 자신이 술선수면 한다면 모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01년생 원상회복의 기쁨이 크다. 행운의 숫자 : 04, 57</p>	<p>35년생 재물운이 크게 열렸으니 잘 활용해 보자. 47년생 성사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니라. 59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형국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71년생 총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83년생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다. 95년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행운의 숫자 : 10, 93</p>